

YONHAP | 연합리페르
REPÈRE

- ☞ 목차
- ☞ 과월호
- ☞ 정기구독신청
- ☞ 사진구입



Special

Ulsan

봄이 내려앉은 날, 훌쩍 떠나자

■ 사진/김주형 기자·글/박상현 기자

인타깝게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상춘객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절의 여왕이라는 봄은 돌아오자마자 어느덧 떠나버린다. 망물을 더뜨리고 나서 1주일을 채 버티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빛깔 고운 분홍색 용단을 만드는 벚꽃처럼……. 나뭇가지에서 파릇한 잎사귀가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벚꽃은 내년을 기약하며 낙하하고, 봄도 뒤쫓아 온 여름에게 비통을 넘긴다. 짧아서 소중한, 화창하기 그지없던 그 어느 봄날에 울산에 닿았다. 자동차가 일으킨 바람이 길에 마구잡이로 흩어져 있던 꽃잎을 비상하게 하듯, 따스한 기운이 겨우내 가리앉아 있던 생명을 일으켜 세웠다.



해안도로 드라이브

정자에서 간절곶까지 이어진 울산의 아름다운 해안도로는 '산업도시'라는 명성과 '볼 것이 없다'는 편견을 무색케 한다. 여느 동해안 바닷가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운 해변에는 낭만과 설렘이 깃들어 있다. 쫓쫓했던 시절, 청량리역에서 무작정 열차를 잡아타고 겨울 바다에 도착했을 때의 흐릿한 기억이 되살아 난다. 바람도 거세고 물결도 거칠지만, 철썩거리는 파도가 울퉁불퉁한 바위에 부딪혀 새하얀 포말을 뿌리던 응어리졌던 가슴 한구석이 시원해진다. 하늘 아래 아득하게 펼쳐진 망망대해는 답답했던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큰 도시는 여행지로서 매력이 없는 듯하다. 수도 서울과 항도 부산을 논외로 한다면 대구, 광주, 대전 같이 인구가 100만 명을 넘는 대도시는 길손에게 인기가 많지 않다. 숙소를 찾거나 밤에 유흥을 즐기기 위해 몇 번인가 이곳을 들른 적은 있지만, 며칠간 머무르면서 시내를 훑은 기억은 없다. 출발하기 전, 울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지레짐작했다. 여기에 대규모의 조선소와 자동차 공장, 정유 공장이 밀집해 있다는 사실도 선입견을 굳히는 데 일조했다. ‘봄도 왔는데, 설마 볼 만한 것이 없겠느냐’는 반신반의의 심정이었다. 번잡한 시가지의 벗어나 정자 해변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생각은 그대로였다. 대로에는 고층빌딩이 즐비했고, 표지판에는 산업단지나 공장을 가리키는 낯선 문구가 적혀 있었다. 방문객이 많지 않은 거울이면 쓸쓸하면서도 분위기가 난다는 정자 해변에 이르렀을 때 울산에 대한 인상을 조금 수정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새하얀 등대를 배경으로 푸른 물결이 기이한 모양의 해암을 실 새 없이 때리고 있었다. 공장이나 산업과 관련된 영상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횡집 간판을 내건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올 뿐이었다.

정자에서 내려가면 ‘미역바위’라는 뜻의 곽암(藨巖)이 있다. 실제로 바위에는 누더기처럼 갈색 미역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쌀쌀한 바닷바람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얀 갈매기 몇 마리가 이리저리 부유했다. 곽암에서 소나무들이 뻑뻑하게 자라고 있는 구불구불한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주전 쪽에서는 채취한 미역을 건조하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발 위에다 엉켜 있는 미역줄기를 가지런하게 정돈해서 햇볕에 말렸다. 이곳 미역이 좋다고 말하는 아주머니에게 맛있는 이유를 물었더니 ‘항시 물발이 세기 때문’이라고 한다. 바람 불고 별 좋은 날에 대역서 정도 놔두면 장에 내다 팔 만한 미역이 완성된다. 이외에도 바다에 통발을 쳐서 봉장어나 문어를 잡는다고 했다. 또한 주전에는

‘소리가 예쁜’ 해변이 있다. 몽돌의 모양새가 동글동글하지 않고 모가 나 있지만 서로 맞닿으면서 내는 소리가 일품이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통과해 현대중공업 공장을 왼쪽에 두고 나아가니 울산 사람들이 최고의 나들이 장소로 여기는 울기등대가 나왔다. 관광지도에는 대왕암 공원으로 표시돼 있는 곳이다. 대왕암까지 가는 길에는 벚꽃, 개나리, 소나무가 군락을 이뤄 피톤치드로 충만했다. 대왕암에는 신라의 문무대왕이 죽어서 바다에 잠겼다는 전설이 전해지는데, 바닷물에 낚싯대를 드리운 강태공들의 손놀림만이 분주했다. 기암절벽이 바다 위로 솟아 있고, 앞으로 광막한 바다가 물결쳤다. 해가 저물 무렵, 바다는 태양빛을 받아 금빛으로 변했다. 부산시 기장과 멀지 않은 간절곶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명소다. 일출도 멋지지만 셋노란 유채꽃이 일렁이는 봄 풍경도 압권이다. 유채꽃이 새하얀 등대, 파란 하늘과 합쳐져 마음을 들뜨게 했다. 그래서인지 간절곶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희망’을 찾고 돌아간다. ‘소망 우체통’이라 명명된 대형 우체통에 엽서를 적어 넣으면 간절곶 염원을 배달해준다. 잃어버렸던 소망을 되찾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다면 간절곶에 가는 것이 정답이다.



신불산

자연과 벗하며 걷는 즐거움

'지지는 요수요, 인자는 요산'이라 했다. 지식 유무나 인자함의 정도를 떠나 산수(山水)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자연을 좋아하는 자 가운데 성격이 악하고 우둔한 사람은 없다. 따라서 산행을 즐기면 지자요, 인자라 할 수 있다. 산이 눈웃을 흘릴 땀고 유산객에게 길을 허하는 봄이다. 산기슭에는 진한 분홍빛 꽃이 핀 복사나무가 개울에 가지를 드리우고 종턱부터는 메마른 억새가 바람에 살랑거렸다. 몸도 마음도 편안해지는 계절에 영남알프스의 신불산에 올랐다.



용기마을

용기는 과학이자 문화다

누군가 밥을 먹던 중 말했다. 그는 가정마다 달랐던 김치의 맛이 언제부터인가 획일화되었다고 한탄했다. 가족의 겨울을 책임지던 음식인 김치는 어머니의 손을 떠나 공장에서 '양산'되고 있다. 이에 더해 김치냉장고 열풍이 김치 맛 동일화 현상에 불을 지켰다. 집집마다 땅을 파서 묻어놓았던 용기는 토양과 호흡하며 김치를 숙성시켰지만, 첨단 기능으로 무장한 김치냉장고는 그저 공장 김치의 맛을 유지시켜줄 뿐이다. 김치가 우리의 문화이듯, 용기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다.



선사시대 미술

역사의 경계를 넘나들다

반구대를 방문했을 때는 나뭇가지에서 연한 초록빛을 띤 새순이 막 돌아나는 시기였다. 봄에는 싹이 트고, 여름이 되면 잎이 무성해지며,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면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식물의 순환은 고래로 불변한 자연의 섭리다. 만물은 변한다고들 하는데, 곰곰 생각해 보니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듯했다. 역사를 건너온 반구대 암각화 역시 그러했다. 선인들이 바위에 새긴 그림은 역천만갑의 세월을 견디고 그대로 남아 있다.



봉계불고기

숯불로 구운 신선한 한우의 맛

울주군에는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한우를 조리한 음식이 두 가지 있다. 너비아니와 흡사한 연양불고기와 육질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봉계불고기다. 둘의 공통점은 석쇠 위에 고기를 놓고 숯불로 굽는다는 것. 사실 봉계불고기는 양념을 첨가하지 않아서 불고기라는 명칭이 어색하다. 하지만 봉계에서는 '산지에서 직접 가져온 신선한 소고기'를 맛볼 수 있다.

ULSAN INFORMATION

경주와 부산 사이에 위치한 울산은 두 도시의 명성에 가려져 있지만 의외로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다. 공업도시이지만 도시와 시골의 풍경을 모두 만나볼 수 있으며 바다와 산, 강을 고루 갖추고 있다. 한적한 해안을 따라 드라이브를 즐겨도 좋고, 유유히 흐르는 태화강을 따라 산책길에 나서도 좋다.

울산 시티투어 개별여행자가 울산을 효율적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한 상품으로 매주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요일마다 다른 주제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며칠간 참가해도 지루하지 않다. 집결지는 태화호텔 앞 둔치 정류장이며 요금은 성인 5000원, 청소년 3500원이다. 052-271-6633, www.ulsancitytour.com

요일	투어 이름	투어 코스
화요일	산업체와 중기문화 탐방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대왕암 송림-웅기마을-울산체육공원
수요일	SK와 처용암 탐방	SK공장-고래박물관-처용암-개운포 성지-간절곶-서생포 역사-웅기마을
목요일	임각화와 산업체 탐방	임각화 동헌 및 내아, 박상진 의사 동상-학생공원-충의사-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금요일	울산 12경 탐방	어물등 마에어래적삼-강동 · 주전 해안 자갈밭-대왕암 송림-작괘천-태화강 십리대밭-울산체육공원
토요일	울산사랑 탐방1	연양읍성-두서은행나무-임각화-박제상 유적-은관리 지식묘-태화강 십리대밭-들꽃학습원
일요일	울산사랑 탐방2	연양 지식묘-연양항교-작괘천-연양읍성-임각화-태화강 십리대밭

관광문의

울산광역시청 052-229-3854, guide.ulsan.go.kr

울산시 관광안내소 052-229-6350

울산 고속버스터미널 052-268-1556

울산공항 052-219-6309

가볼 만한 곳

태화강 심리대발 태화강 상류에는 괴이한 모양의 바위인 선바위가 있다. 선바위부터 울산 시내 쪽으로 심리에 걸쳐 대나무 밭이 이어진다. 도심의 산소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며, 철새가 서식하기도 한다. 울산 시민들은 산책이나 자전거 타기 등 간단한 운동을 하기 위해 방문한다.

가지산 울산에서 가장 높은 산(1240m)으로 울산 시내를 가로지르는 태화강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 가운데 가장 먼저 일출을 바라볼 수 있고 연중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산에 오르면 신불산, 간월산 등 영남알프스의 봉우리들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다. 석남사에서 오르면 정상까지 2시간 30분 내외가 소요된다.

장생포 고래 박물관 국내 유일의 고래 박물관으로 장생포 해양 공원 안에 위치한다. 장생포 지역은 독특한 맛의 고래 고기로 유명하다. 고래 박물관에는 포경 유물을 비롯해 고래와 관련된 각종 정보가 전시돼 있다. 관람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관람 요금은 성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이다. 052-226-2809, www.whalemuseum.go.kr

서생포 왜성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축성한 일본식 석성으로 계단식으로 쌓았다. 200m 산꼭대기에 본성이 있고, 아래쪽에 다른 성을 두고 있다. 직사각형 형태의 성벽 높이는 6m이고 기울기는 15°로 기울어져 있다. 요즘에는 일본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으며 봄에는 벚꽃이 만개해 예쁜 모습을 보여준다.

성남동 차 없는 거리 울산의 명동으로 극장, 카페, 레스토랑, 옷가게 등이 즐비하다. 다양한 의류 점포가 있는 패션거리, 상점 30여 개가 오밀조밀 모여 있는 보세거리, 중부 소방서를 중심으로 하는 차 없는 거리가 있다. 인근에는 곰장어 구이 전문식당이 늘어서 있고 잡화를 구입할 수 있는 전통 골목시장거리도 있다.

자수정 동굴나라 자수정을 채굴하던 폐광을 이용해 만든 동굴관광지로 눈썰매장, 인공폭포, 산책로, 편의시설 등이 있다. 동굴 내부에는 자수정 전시장, 지구 환경전시관 등 각종 전시물이 마련돼 있으며 과거의 채광 모습도 살펴볼 수 있다. 도자기 만들기 체험과 자수정의 가공 과정 관람도 가능하다. 052-262-5587~8, www.jsjland.co.kr

박제상 유적 신라시대의 충신인 박제상과 그의 부인을 기리기 위해 세웠던 사당의 터다. 박제상은 일본 왕에게 붙잡혔으나 끝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의 부인은 일본을 바라보며 통곡하다 죽었는데, 몸이 돌로 변해 망부석(望夫石)이 되었다고 한다. 주변에는 부인의 영혼이 새겨 되어 바위에 숨었다는 은을암(隱乙岩)이 있다.

파래소 폭포 신불산에 있는 폭포로 15m 높이에서 물이 낙하하며 만드는 물보라가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배내골 계곡과 원시림이 어우러진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폭포가 떨어지는 소의 둘레는 100m에 달하며 중심에는 명주실 한 타래를 풀어도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 top](#)